

주춤해진 '동학 개미'...대형주 투자는 여전

광주·전남 6월 주식거래대금 13조5242억...1월 대비 39.5% 감소 두산중 4805억·카카오 3173억...코스닥은 바이오주 상위권 포진

올해도 여전한 주식 열풍 속에서 광주·전남 지역 민의 주식 투자는 연초보다 주춤해진 모양새다. 2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 주식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합산)은 13조5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8조1625억원)보다 65.7%(5조3617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지만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이 처음 20조원을 넘긴 지난 1월에 비해서는 39.5%(-8조8419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불안 속에서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 주식

투자가 활발했다. 올해 1월 들어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은 22조3661억원으로, 전월(19조8815억원)보다 12.5%(2조4846억원) 증가하며 월 거래대금 2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같은 달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 코스피 지수는 65년 만에 '꿈의 지수'인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지속되지 않고 지난 5월 지역 거래대금은 10조8936억원으로, 올 1월의 '반토막'(-51.3%)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광주·전남 주식 거래량 역시 지난 5월 11억9106

만주, 6월 16억8573만주로, 지난 1월(19억220만주)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6월 기준 1주당 평균 거래대금은 8023원으로, 1년 전(9722원)보다 17.5%(-1699원) 줄었다. 올해 1월(1만1758원)에 비해서는 31.8%(-3735원) 감소했다.

주당 평균 거래대금은 다소 줄었지만 지역민들은 대형주 위주 투자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유가증권 거래대금 1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으로, 총 4805억원 상당을 지역민들이 투자했다.

카카오(3173억원)가 2위로 뒤를 이었고 3위 진원생명과학(3019억원), 4위 대한전선(2816억원), 5위 HMM(2660억원), 6위 삼성전자(2575억원), 7위 신종제약(1614억원), 8위 네이버(1608억원), 9위 기아(1143억원), 10위 SK하이닉스(1089억원) 등이 거래대금 순위권에 들었다.

지난 1월 지역 코스피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1조2471억원)이었는데, 5개월 새 지역 거래대금이 79.3%(-9896억원) 급감했다.

지난 6월 기준 지역민들의 코스닥 거래대금 1위는 씨젠(1088억원)이었고, 네이처셀, 셀트리온헬스케어, 셀리드, 휴마시스, 우리기술, 셀트리온제약, 보성파워텍, 현대바이오, 라온시큐어 등이 순위권에 들어 바이오 업계 약진이 지속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식과 회사채 발행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 발행 규모는 12조6361억원(80건)으로 1년 전(2조1530억원·38건)보다 10조4831억원(486.9%)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11년 6조6000억원의 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증권결제대금은 37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으로는 30조67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32.70 (-11.34)
↓ 코스닥	1043.64 (-6.19)
↓ 금리(국고채 3년)	1.410 (-0.049)
↑ 환율(USD)	1150.40 (+2.60)

ESG 경영 실천 중기 대출금리 깎아준다

광주은행 신상품 출시

광주은행이 'ESG 경영'을 펼치는 우수기업에 금리를 깎아주는 대출 신상품을 출시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ESG 경영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 'ESG 서포트 론(SUPPORT LOAN)'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과 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을 강화하며 상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는 환경 부문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지배구조 부문에서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대표이사 모범납세자인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0% 이상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발행한 1000억원 규모 ESG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ESG 서포트 론'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4월부터 '녹색금융' '포용금융' '생산적금융' 강화를 위한 ESG팀과 ESG 추진위원회를 잇따라 신설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난 16일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기업의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K-EV100' 가입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가인 '앞새레터'로 위안 얻으세요

보혜, 포토카드 추가 시즌 2 시작...지역 특산품 제공

보혜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앞새레터 시즌 2'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난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앞새레터는 올해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포토카드를 신규로 추가해 더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혜양조는 20일부터 앞새레터 시즌 2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새레터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기를 이겨내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혜양조가 마련한 캠페인이다.

보혜양조의 대표 제품인 소주 앞새주와 보혜 등과 관련된 추억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내용을 작성해 앞새레터 편집국으로 보내면 선정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 특산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이벤트다.

앞새레터 편집국은 지난해 캠페인 시작 한 달만

에 500여개 사연을 받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또 앞새레터가 진행된 지난해 7개월간 전국에서 4000명이 사연을 보내올 정도로 참여가 높아 올해 시즌 2 행사를 준비했다고 보혜는 설명했다.

참여방법은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앞새주 제품에 부착된 앞새레터에 보혜양조와 앞새주, 송가인과 코로나19 극복 응원 등 내용을 적어 우체국에 보내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낚시노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도 앞새레터 사연자 중 추첨을 통해 지역 특산품 등 사은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보혜는 앞새레터와 함께 송가인 포토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송가인 포토카드는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포토카드 이벤트 알릴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1장씩 포함돼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컨셉에 맞춰 촬영된 4장의 포토카드는 송



가인의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어 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혜양조 관계자는 "지난해 앞새레터 이벤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답사 시즌 2와 포토카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새주 모델 송가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앞새레터와 포토카드를 통해 작은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

기아 광주 생산 신형 스포티지 출시



2442만~3593만원

기아가 20일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했다.

스포츠지는 기아 광주오트랜드에서 생산되는 기아의 대표적인 준중형 SUV 모델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형 스포티지는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 6일 1만6078대가 계약됐고, 영업일 기준 10일간 총 2만2195대의 사전계약이 이뤄졌다.

신형 스포티지는 역동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을 갖췄다.

차량 전면에는 검정색 하이테크 크롬 패인을 적용한

'타이거 노즈'(호랑이 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측면은 웅장하면서도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균형감을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가니쉬(장식)와 날렵한 리어램프(후미등)로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실내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부드럽게 곡면으로 연결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적용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전환 조작계를 장착했다.

신형 스포티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함께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등 3개 파워트레인을 갖췄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국내 브랜드 최초로 과속

방지턱 통과 시 차량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관성력을 발생하도록 모터로 제어를 완화하는 이라이드(E-Ride)와 모터 가감속으로 전후륜 하중을 조절해 조향 시 좌시 주행 민첩성을, 조향 복원 시 주행 안정성을 향상해 주는 이핸들링(E-Handling) 기술을 기본 탑재했다. 디젤 모델에는 오토 기능을 추가한 터레인(터보주행) 모드를 처음 적용했다.

이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디지털 키, 기아 페이, 후석 승객 알람 등의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가격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109만~3593만원, 1.6 터보 가솔린은 2442만~319만원, 2.0 디젤은 2634만~3385만원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나라장터' 운영제도 혁신 조달청, 내년부터

조달청은 내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이며 합리적으로 혁신한다고 밝혔다.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하며, 직접 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한다.

1억원 이상 구매 때 다수 업체를 경쟁에 참여시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희망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쪼개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① 신한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② 상품을 → 유니온정기예탁금 ③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은행권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한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